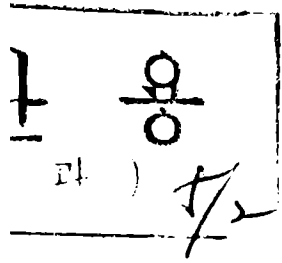


朴明夏嬢이 證言한 北韓의 社會實態



1976. 9.

머 리 말

北盲症이란 말이 있다.

이는 北韓에 關한 知識情報에 매우 어둡다는 말이다. 많은 國民들이 이 北盲症에 걸려있는것 같다. 더구나 政治思想 및 宗教哲學分野의 專門家임을 自勉하는 분들 중에도 이 北盲症에 걸려있는 事例를 종종 볼 수 있다. 北韓問題의 專門部署에서 종사하고 있는 우리들도 朴明夏嬢의 北時間에 걸친 이 証言을 듣고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고, 한편으로는 北韓同胞들이 겪고있는 淒慘한 生活相에 솟아 오르는 憐憫의 情을 금할 수 없었다.

우리 現代史의 悲劇들이 國內外狀況에 無知했던데서 연유했다는 사실과 統一의 重要性이 國民生活의 모든 分野에서 더욱 절실해져가고 있는 現實을 勘案할 때 北韓問題는 더이상 專門家나 一部關係者들만의 專有物일 수는 없다.

이러한 動機들이 編輯者로 하여금 朴明夏嬢의 証言을 収録·編輯케 한 것이다. 이 소책자는 1948年 12月 28日 황해도 사리원에서 태어나 「金日成의 忠直한 딸」로 成長하다 급기야는 反動分子로 낙인 찍혀 集團農場에서 強制勞動을 하다가 동생과 함께 연약한 女子의 몸으로 21才에 死線을 넘어 越南한 朴明夏嬢이 1976年 6月 30日 証言한 北韓社會實態이다. 이 소책자가 北韓住民들의 生活相과 北韓社會實態에 대한 理解와 北韓共產主義의 本質을 把握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것이 編輯者의 소망이다.

1976年 9月 日



박명하의 약력

성명 : 박명하

생년월일 : 1948. 12. 28

현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48-20

학력 및 경력사항

- | | |
|-------------|----------------------------|
| 1954.4~61.8 | 황해도 사리원시 유자녀학원 (고아원 겸교육기관) |
| 1961.9~64.8 | 황해도 사리원시 사리원 공업고등학교 수학 |
| 1965.3 | 강원도 철원군 회산인민학교 교사로 근무 |
| 1967.3 | 회산집 단농장에서 강제노동 |
| 1969.8.15 | 대한민국에 귀순 |
| 1976.9 현재 | 서대문구청 근무 |

목 차

1. 成 長 期	7
2. 北韓의 歪曲教育場巡回學習	11
3. 教員生活	20
4. 北韓의 託兒所 慘狀	25
5. 集團農場에서의 強制勞役	29
6. 北韓脱出	37

1. 成 長 期

나는 황해도 사리원에서 태어나 家庭에서 成長하지 못하고 孤
兒院에서 자랐다. 北韓의 黃海道와 江原道 같은 곳에서는 反動
이라고 烙印적인 사람은 살 수 없다. 이들이 南韓으로 脱出할
까 두려워 咸鏡道로 모두 추방시켜 버린 것이다. 바로 그때
나의 父母와 兄弟들이 다 붙들려 갔다. 그러나 당시 여섯살이
있던 나는 거리에 나가 놀았기 때문에 父母님께서 다리고 갈 수
없었으므로 사리원 고아원에서 滿11年을 자라났다. 자라는 동안
나는 많은 것을 배우고 罪도 많이 지었으며 일도 많이 했다.
그 期間동안 나는 學校에서 공부와 軍事教育을 함께 받았다.
軍事訓練을 어느 정도로 철저히 받았느냐하면 地雷를 埋設하고
이를 除去하고 大砲를 쏘는데 그것도 낮에 한 것이 아니고 감
감한 밤에 매일 세시간씩 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金日成
의 忠直한 딸이 되는 길이다.

午前에는 공부를 하고 午後에는 작업장에 나가 직접 生
産運動에 參加해서 일을 했다. 北韓에서 물이 제일 부족한 都市
는 黃海道 사리원이다. 黃海道 사리원에는 큰 개천이 없다.
그래서 먼지가 많고 메마른 都市이다. 그곳에 金日成이는 北韓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을 動員해서 運河를 파 경원산앞까지 큰
배가 들어 가겠끔 만들어 놓았다.

이 운하를 만들때 나는 孤兒院에서 자라면서 공사장에 나가

흙짐을 지고 일을 했는데 일을 하면서도 北韓만이 사람이 살 수 있는 幸福한 곳이라 생각했다. 왜냐하면 北韓에서 南韓을 생각할 때 南韓은 너무나 비참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만 해도 거지가 350萬이 있으며 가뭄이 들어서 農事를 못지어 썩은 밀가루를 먹다가 많은 사람들이 食中毒에 걸려 죽고 매우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 내가 金日成을 지지한 이유도 北韓에는 거지도, 精神病者도, 도둑놈도 없다는 사실에서 였다.

나는 北韓에서 工業高等學校를 卒業했다. 北韓社会는 男女를 區別하지 않고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여자가 工高를 나왔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工高를 다닐때 刑場에서 死刑당하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다. 3年間 每月 1回씩 사람 죽이는데 동원되었는데 銃으로 쏘아 죽이지 않고 창으로 찔러 죽이고 삼으로 찍어 죽이곤 했다. 北傀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왜 孤兒가 된 줄 아느냐? 바로 저자들이 너희 부모를 찢어 죽이고 물에 빠뜨려 죽이고 목을 잘라 죽여서 너희들이 孤兒가 되었으니 아버지 어머니의 원수를 꼭 갚으라」고 했다. 나도 孤兒가 된 것이 그렇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準備해준 삼과 창을 가지고 막 호느끼면서 그 사람들을 창으로 다리를 자르고 배를 찢어서 죽였다. 그 사람들에게 복면을 씌워 나무에다 붙들어 매어두고 창을 들고 소리를 치면서 죽이러 뛰어 가면 그들은 하는 말이 「주여!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곤 했다.

그래서 「아! 저놈 정말 악질이구나. 주여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들어 본 적이 없었으므로 그것이 反動의 말인 줄로만 알았다. 게다가 北韓에는 反抗할 自由가 없기 때문에 反抗을 못한다. 그리고 反抗할 自由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許容을 하면 反抗을 할 수가 있는데 反抗하는 사람은 다리를 찢는 다든가 해서 창끝에다 어린이들이 끼워가지고 사리원市內를 한바퀴 돈 후에 동산의 과수원 사과나무 밑에 묻어 거름을 했다. 그래서 무덤은 빨갱이들만의 전유물이고 反動은 죽여서 거름으로 사용하는 줄 알았다. 지금 생각하니 北韓사람들이 反抗을 못 하는 것도 살기 좋은 社會가 되어서가 아니고 그토록 무참하게 죽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天國에 갈 수 있다는 希望을 갖겠지만 北韓사람들은 종교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모두가 無神論者들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떨어져 죽어도 反抗한번 못하고 그냥 죽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 나는 7年을 자라났다. 그러면 「주여 감사합니다」하면서 죽어간 사람, 즉 종교인들을 어떻게 색출해 내는가? 地主, 資本家 親日派나 親美派, 民族反逆者 越南者 家族과 같은 사람들은 모두 함경도로 불들어다 強制勞動을 시킬 수가 있지만 宗教人은 宗教의 自由가 없을 뿐만 아니라 敎會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말마저도 북한 사람들은 모르며 聖經책과 讚頌이라는 것도 모른다. 그래서 宗教人을 색출할때의 方法은 보다 야비하고 잔인했다. 國民學校 1~2學年밖에 안되는 어린아이들에게 「너희집에 가면 보따리속에 책이 두어권 있을 것인데 그 책을 펴보지 않고 가져오는 學生에게는 金日成이가 만든 만경대학원

에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學生들에게 課業을 주면 學生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자기부모 몰래 성경책을 훔쳐다 주게되고 그것을 훔쳐온 學生은 그날로 바로 나처럼 孤兒院에 보내지고 「너희가 孤兒가 된 것은 너희 父母를 反動이 죽였기 때문이다」고 거짓말을 하여 철저한 共產主義者로 만든다. 이와 같이 宗教人을 죽이는 이유는 宗教人들은 밖으로는 表現하지 않지만 金日成을 믿지 않으며 눈을 감고 잘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므로 이런 宗教人을 살려두어서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北韓의 教人은 다 죽어 갔다. 따라서 宗教라는 것을 모르며 金日成이만 믿으면 사는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北韓에서 金日成이를 위해서라면 大韓民國사람을 혼자서도 100名을 쏘아 죽일 수 있는 一當百의 名射手가 되었다. 女子라고 깔볼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거리에 나가 택시를 몰 수도 있고 銃도 아주 정확하게 쏠 수가 있다.

2. 北韓의 歪曲教育場巡回學習

공업학교를 마친 나는 당의 지시에 따라 강원도로 보내졌다. 江原道에 가게된 것도 金日成이가 보내주었기 때문이며 江原道에 보내면서 共産大學에 보내준다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했고 그 당시에는 無條件 金日成에게 감사해야 했다. 그리하여 江原道 鉄原에 갔더니 17~18才된 아가씨들이 3,000名이나 와 있었는데 나는 그 아가씨들과 함께 教育을 받았다. 그 教育이 어떤 教育이나 하면 사람을 식별하는 方法을 배우는 것이었다. 사람을 식별할 때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고 손을 보고 식별한다. 손을 보아 손이 고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일을 안했구나 부르조아思想이 있기 때문에 손이 곱고 일이 하기 싫으니까 資本主義를 좋아 하겠고 남의 피와 땀을 빨아 먹은 支配階級을 동경한다는 식의 教育을 받았다. 게다가 손이 고운 사람을 체포하는 教育도 받았으며 실제 실습도 나갔다. 북쪽사람들은 대개 손이 곱지 않다. 安全機關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사람을 때려 체포할 수 있는 技巧를 다 익혀야 하므로 태권도 같은 무술을 능숙하게 익히는 관계로 손이 매우 험하다. 실습중에 손이 고운 사람을 보면 아무집에나 데리고 들어 간다. 北韓에는 個人財産이 없어서 도둑놈이 도둑질해 갈 것도 없기 때문에 도둑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수상한 사람을 아무집에나 데리고 들어가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집에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보면 완전히

무장되어 있다. 우선 집안에 들어가 보면 담배갑속에다 고추가루
 를 넣어 담배로 가장해 놓기도하고 계란껍질에다 고추가루를 넣어
 서 장난감 같이 만들어 놓기도 했으며 또 못이 90개씩이나 박
 힌 망치를 봉투에 싸서 손이 잘닿는 곳에 걸어 놓았다. 사람을
 때리고 들어가면 먼저 안심을 시킨후 담배를 피우라고 권하고서
 담배를 뽑으려고 하면 담배를 주는 대신에 고추가루를 눈에다 확
 뿌린다. 그리고 고추가루가 눈에 들어가는 순간 준비해 놓은 망
 치로 깎는다. 내가 깎다는 表現을 하면 여자가 어떻게 그런 무지
 한 말을 하느냐고 하겠지만 사실 北韓에서는 저사람이 수상하다,
 저 사람이 反動인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사람은 벌써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때린다 붙든다는 말은 안하고 짐승을 잡듯
 이 까서 잡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망치로 두번만 내리치면 실신하게
 된다. 그리고 人民班에 5戶担当制라는 것이 있어 다섯집에 信號裝
 置가 다 되어 있다. 이 신호줄을 당기면 다섯집에서 사람들이
 모두몰려와 그사람을 붙들어 安全部에 인계한다. 바로 그 實習을
 하다가 나는 安全員을 한사람 붙들었다. 그러나 너무 세게 깎기
 때문에 죽어버렸다. 이런경우에 죽인 사람에게 罪가 있느냐하면
 그렇지 않다. 아주 용감하고 대담하다고 하여 영웅칭호를 받을
 정도로 칭찬을 받게 된다. 그러나 죽은 사람의 家族들은 어디에
 다 억울한 것을 호소할 수도 없을뿐더러 호소를 해보아도 그것은
 成立이 안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自己職務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安全員이 아니라 人民軍隊軍官이라고 하더라도 資格

이 없고 웅당 그렇게 맞아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죽인 사람은 罪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같이 나는 열일곱 살때 그곳에 가서 男子安全員의 머리를 가서 病院에 데리고 갔는데 세시간만에 죽었다.

그후 北韓을 일주했다. 붉은 思想으로 무장된 3千名の 아가씨들이 차를 타고 함경북도로 가서 白頭山의 보천보라는 곳에 안내되었다. 北韓에는 보천보라는 노래도 있는데 金日成이가 보천보 전투때 제일 용감하게 싸워 이겼다고 하여 그곳을 굉장히 잘 꾸며놓았다.

또 白頭山 밑에 가면 매우 잘 꾸며 놓은 密林地帶가 있다. 그곳에 가 보니 나무에다 칼로 글씨를 파놓았는데 대개 다음과 같이 써 놓았다.

「金日성장군 만세」라든가 「조선농민만세」라든가 「日帝를 쳐부수자」는 口呼들인데 싸워이겼다는數를 계산하니깐 金日成이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루에 스물여덟번씩 싸움을 해서 스물여덟번 모두 勝利를 한 숫자가 되었다. 이것을 보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나는 金日成이를 믿게 된 것이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했을까? 정말로 金日成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 世上에서 가장 위대한 우리의 領導者라고 믿게 되었다.

또한 압록강에도 갔다.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이북 사람들이나 속을 이야기인데 南韓에는 電氣도 없어 가뭄이 들 때에는 平野 같은데도 양수기 같은 것도 못놓고 해서 벼도 타 죽고 농사도 못짓는다고 하였다. 더욱 工場에는 電氣가 없어서 다 거미줄이

쳐져 있다고 선전하는데 우리나라 地圖을 보면 38선 以南에는 工場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는 대신에 거미줄이 쓸은 것을 그려 놓았다.
그곳에서 南韓의 제주도까지 일기예보를 해주는 것을 보고 다음과
같이 물었다. 「北韓에서 日氣豫報를 해주어도 南韓은 아무것도
없어서 듣지 못 할 텐데 무엇때문에 예보하느냐?」 이에 대해
金日成이가 했다는 말이 그래도 海岸가에서는 漁夫들이 나와서 들
을 수 있어 風浪 같은 것을 미리 避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북한이 南韓 同胞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길
은 그 것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北韓에 남한의 어부들이 많이 불들려 오는데 그 사람들이 불들
려서 북한 배에 올라 탈적마다 옷을 다 찢어서 물에다 버리는
선전장면이 소개되곤 한다. 그리고 어부들의 이런 行動은 南韓이
더럽고 못사는 세상이니 그가 입은 옷까지 버린다고 설명한다.
또 그들은 남한에서는 日氣豫報도 없는 한심스럽고 불쌍한 世上인
데 남한 동포들은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強調한다.

그러나 압록강에 가보면 電氣生産量의 50%를 中共에 가져가고
있는것을 알 수 있다. 북한 당국이 선전하기를 남한에 전기를
보내주려고 하는데도 朴大統領께서 빨갱이 물이 흘러내려 붉은 思
想에 물이 드니까 電氣를 안받겠다고 거부해서 안보내준다고 했다.
나도 처음에는 그것이 事實인줄 알았다.

그런데 북한사람들이 하루에 電氣를 두時間밖에 못키는 이유가
中共에게 전기를 50%나 보낸다는데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런것을 말할 수 없었다. 그것을 말했다가는 나도 산수갑산을 가게. 되니까 그것을 알고서도 말할 수 없었다.

北韓에는 공장같은 것이 다 地下에 들어가 있다. 地下에 電氣를 켜야하기 때문에 地上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二時間 以上 電氣를 使用할 수 없으며 한 家口當 한등밖에 켤 수가 없다.

그 다음에 金日成이가 出生한 만경대에 갔다. 거기에서 느낀 것은 金日成이를 안믿을래야 안믿을 수 없겠음 꾸며 놓았다는 사실이였다. 金日成이가 出生했다는 집을 가니까 강반석이 金日成을 낳았을때 이 절구에다 벼를짚어 가지고 첫국밥을 해먹었다고 절구통에 씨 붙여 놓은 것이 있었다. 그래서 「야! 원수님 金日成이 같은 높은 인재를 낳아야만 어머니들이 이 밥을 먹는가 보다」고 생각을 했다. (註) 現在 北韓에서는 쌀밥을 먹지못하고 강냉이등 잡곡밥과 감자를 먹는다.

그리고 뒷동산에 올라가면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에다 金日成이가 일곱살때 무지개를 이 소나무에 올라가서 붙들었다고 씨 붙혀 놓았고 그 밑에 있는 바위에는 金日成이가 여섯살때 그 바위에서 고무총을 가지고 日本巡査 일곱명을 쏘아 죽였다고 씨 있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곳마다 北韓 사람들이 金日成이를 위대하다고 믿겠음 꾸며 놓았다.

그리고 中央博物館에는 흙이 한 창고 있는데 이 흙은 金日成이가 36年間 滿洲벌판에서 祖國을 위해 日本놈과 싸우면서 祖國에 戰鬪를 한번 하러 왔다 갈때마다 祖國의 땅냄새가 그리워서 흙을 한웅큼씩 가져다가 이 흙을 36年間 모았더니 倉庫로 하나가 되

어 그것을 유물로 保管한 것이라고 했다.

이것을 보고 김일성이가 얼마나 내 祖国과 내 同胞를 사랑했나 정말로 본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 다른 칸에 갔더니 김일성이가 열여섯살때 빨치산 대장을 했는데 그때 총알에 맞은 적이 있다고 한다. 거기에는 김일성이가 총에 맞았을 때 입고 있던 옷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 옷을 보니 심장을 직통으로 뚫고 나가 있었다. 그 옷을 볼때 나는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다. 심장이 없는 사람이 아직까지 살아 가지고 그토록 北韓을 거지없는 世上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정말로 金日成이를 믿어야겠다고 覺悟를 했다.

다음 2層에 올라가니 金日成이 아버지가 3.1運動의 指揮者였으며 그때 獨立할 수 있었는데 日本놈들의 앞잡이인 그 아래 사람들이 고자질을 하여 失敗를 했다는 이야기가 쓰여 있다.

또 3層에 올라가면 김일성의 할아버지가 서만호事件때 그 배를 全滅시켰다는 장면이 나오고 거기에서 포획했다는 大砲가 있다. 이같이 상황을 조작해 놓았기에 北韓사람들이 金日成이를 믿는 것을 목해보았자 아무 쓸데 없는 일이다.

다음에는 黃海道 信川에 갔다. 이곳에 한번만 가보면 세살난 어린애라도 南韓을 救出하고 美帝를 쳐부셔야겠다는 각오가 생기겠음 思想教育場을 地下에다 만들어 놓았다. 戰爭을 해서 이기면 南韓의 어린이들에게 教育을 시키고 이것을 보여 주면 美國도 미워하고 自由世上을 증오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大韓民國 국민을 教

育할 수 있겠끔 아주 완전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곳에는 약 60세 되는 영감이 館長인데 그가 방문객에게 설명한다. 그의 이마에 도둑이라는 표식이 새겨져 있다. 그 영문을 묻자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열두살때 미국 선교사가 이 지방에 와서 果樹園을 經營했는데 그 과수원 옆을 지나다가 길가에 떨어진 사과하나를 줬더니 갑자기 「세 퍼트」가 와서 덮쳐 불고 이어서 미국 선교사가 나와서 끌고 들어가 사과나무에다가 붙들어 매놓고 도둑이라고 썼는데 얼마나 깊이 써놓았으면 60살이 넘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겠느냐」고 하면서 눈물을 흘린다. 그는 계속하여 아마 南韓의 우리 同胞들은 그 고통이 이보다 더 할 것이라고 했다. 이말을 듣고보니 남한의 동포들을 구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용솨음치게 되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우리들은 영화관이 있는 지하실로 안내되었다. 그 곳에서 영화를 구경했는데 그 영화를 통해 6.25 戰爭때의 비참했던 참상을 한 눈에 볼 수 있겠끔 만들어 놓았다.

1950年 6月 25日 0時 20分에 美國軍이 北韓에 쳐들어오는 장면을 보게 된다. 미군이 쳐들어와서 집에 불을 지르고 그 불더미 속에서 머리가 풀어 헤쳐진 어머니들이 애기를 끌어안고 살겠다고 뛰어 나오면 美國사람들이 붙들어 불에 태워죽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영화는 北侵한 美軍이 아가씨를 붙들어 짓을 찢라 죽이는 장면, 아버지들은 붙들어 광속에 넣어 푼으로 잘라

죽이는 장면, 그리고 사람을 붙들어 쫓차 뒤에다가 사지를 붙들어 매어 찢어 죽이는 장면 등 눈을 뜨고는 차마 보지 못할 비참한 장면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영화를 보고 나는 무엇 때문에 美國사람들이 太平洋을 건너와서 罪없는 우리동포를 저처럼 처참하게 죽이는가, 원수를 기필코 갚아야 겠다고 각오했던 것이다.

그 영화를 관람한 후에 그것에 대한 비참한 實物을 보여 주었다. 地下 倉庫에 들어가니까 그 바닥은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이 바닥이 파뿌리 같이 파여 피가 묻어 있는데 이는 어린이들이 다 굶어죽어가며 엄마, 아빠를 찾으려 하도 바닥을 긁어 가지고 손톱이 빠져서 생긴 자국이라고 하는데 이 어린이들의 그 손톱은 倉庫로 꽂차 있었다. 이 광경은 정말 눈물없이 볼 수가 없었다.

말 못하는 어린이들이 무슨 罪가 있길래 어머니 품에서 빼앗아 이렇게 죽였는가 싶어 美國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을 불타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시체를 휘발유에 태울때 그울렸다고 하는 천정을 쳐다보니 거의 다 타서 다 떨어질려고 했으며 그 냄새는 아주 지독했다.

다음 倉庫에는 어머니들의 머리카락이 있는데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머리카락이 이 倉庫로 하나 가득차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들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죽였다는 것이다. 어머니들이 살겠다고 문밖으로 뛰어나오면 機關銃으로 쏘아 죽였다고 한다. 이런 광경들을 보고 나는 아무 생각도 안들었다. 정말 우리 同胞

胞의 원수를 갚아주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을 했다.

지금와서 생각하면 휘발유를 뿌리고 태워죽였는데 왜 손톱과 머리카락이 남아 있을까 하는 이상한 생각이들지만 그곳에서는 이상하다고 생각할 틈도 없이 얼마나 많이 죽었으면 저토록 머리카락과 손톱이 많을까 하는 생각과 원수를 갚아 주어야 되겠다는 복수심뿐이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 김일성이가 얼마가지 않아 癌으로 죽는다고 하는데 죽지 말고 3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統一이 되는 그날까지 살아준다면 붙들어다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그렇게 모았고 어떻게 해서 어린이들 손톱을 뽑아 모았는지 国民앞에서 한번 붙어 봤으면 좋겠다.

3. 教 員 生 活

유람을 마치고 철원에 와보니 사실은 共産大學에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제대군인의 색시감으로 내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대군인의 색시감으로 팔려간 데 대하여 기뻐했다. 왜냐하면 우선 一線에 있는 사람들은 思想이 堅固한 共産主義者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되면 學校에도 보낼 수 있고 출세도 할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北韓에서는 成分이 나쁜사람들의 子女들은 제아무리 똑똑해도 쓸모가 없다. 공부를 할 수도 없고 출세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共産黨에 入黨할 수도 없다. 그래서 그 除隊軍人들에게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으면 앞길이 트이지 않겠느냐 하여 감사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사실 除隊軍人들의 색시감으로 보낸 理由는 北韓의 軍복무기간이 10年이고 10年동안은 휴가도 갈 수가 없다. 게다가 除隊를 하여도 마음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데로 못간다. 故郷도 못가고 職場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하며 一線地方에 南韓의 郷土豫備軍과 비슷한 勞農赤衛隊로 再配置된다. 나 역시 勞農赤衛隊로 배치되어 그곳에 갔다. 이것은 10年동안 김일성에게 충성하고 제대를 했으면 고향에 가서 결혼도 하고 父母도 모셔야겠는데 왜 안보내주고 一線에서 銃을 메고 夜間에 나가서 歩哨를 서야되느냐고 불평이 나오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김일성은 아름답고 思想이 堅固한 너희 색시감을 보내 줄테니 내말만 무조건 잘들어라는 식이다.

그러나 정작 除隊軍人の 색시 감으로 가보니 바로 결혼을 시켜주지 않았다. 北韓에서는 스물여덟살이 되어야만 결혼을 할 수 있는데 내가 그곳에 갔을때 열일곱살이었으니까 스물여덟살이 되려면 아직 10年은 있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10년동안 그 사람들은 아가씨들을 바라보며 길러서 結婚을 해야 되는 셈이다. 그러면서도 나는 좋은곳에 오게 되었다고 김일성에게 온갖 충성을 다 했다. 나는 黨에 入黨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다. 그런데 철원에 가 있는 동안 나의 희망대로 勞動黨에 入黨이 되었다.

그리고 入黨後에는 小學校先生으로 일하게 되었다. 學校先生으로 가보니 어린이들에게 아주 이상한 教育을 시키고 있었다. 北韓에서는 國民學校에서 學生들에게 도둑질 같은 것을 배워주는데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工作이라고 부르고 있다. 北韓에서는 工作이란것은 다 좋은 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南韓에 간첩으로 내려오는 사람은 金日成이에게 信任을 받는 사람들만 工作員이란 이름으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이며 그 工作員이란 말을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工作이라는 말속에는 도둑질과 殺人, 拉致, 強盜, 破壞 등의 다섯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제일 첫단계로 學校에서는 도둑질을 배워주는데 이것이 南韓에 간첩으로 내려와서 사람을 生捕하기 위한 첫 準備段階이다. 그래서 어떤 짐승을 붙들어 오더라도 죽이지 않고 살려서 붙들어 오는 教育을 시킨다. 짐승중에서 붙들기가 가장 쉬운것이 닭인데 닭을 살려서 붙들어오려면 소리를 쳐서 主人에게 들키기

때문에 대단히 힘이 들고 목을 쥐면 조금만 쥐어도 금방 죽으니까
아이들에게는 꽤 힘든 일이다. 그런데도 시골에 가서 工作해 오
라고 명령만 내리면 산 닭을 훔쳐올 수 있는 어린이들이 그반의 70~
80%에 달하고 있다. 게다가 생각하는 것도 金日成이와 같이 생
각하고 춤도 金日成이가 추는대로 추고 있다. 그뿐만아니라 金日成
이가 行動하는대로 行動하고 있다. 따라서 金日成이에게 딸린 하나
의 附屬物에 지나지 않고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機
械의 한 附屬品과 같이 되어 버렸다. 나역시 北韓에 있었을 때는
金日成이가 指示한 것은 아주 잘 수행하였고 指示가 떨어지기 前
에도 무엇을 시킬것 같다고 느껴지면 미리 자진해서 해 놓곤 하였
다. 따라서 어린이들에게도 共產主義教育을 철저하게 시켰다. 그
리고 밤에는 나가서 休戰線에 夜間潛伏勤務도 했다. 이로 인하여
감기를 자주 앓았고 숲속에 엎드려 한국군이 쳐들어 올까봐 항상
뚝바로 步哨를 섰기 때문에 관절도 많이 상하곤 했다.
이러한 生活을 약 3年동안 계속했다. 그러던 어느날 學生들이 청
소를 하다가 金日成의 写真을 떨어뜨려 눈을 빠뜨려 버리게 되었다.
北韓에서는 金日成의 사진에 유리를 안끼운다. 그것은 金日成이
写真에 유리를 끼우게 되면 점열을 나올때에만 닦아서 깨끗하게
하기 때문이다. 北韓에서 金日成을 굉장히 偶像化하는데 그 写真
에 먼지가 묻는다든가 파리똥을 싸게되면 즉시 닦고 항상 손질하
고 늘 쳐다보고 존경하고 파리를 쫓아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金日成에게 忠誠하겠금 하고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늘 손질하겠금

유리를 안 끼워두고 있다. 이렇게 해두고서 만일 파리똥이 묻었다든가 거미줄이 걸렸다든가 또는 먼지가 묻어있을 경우에는 책임자는 아오지탄광에 보내진다. 그래서 항상 金日成의 写真을 쳐다보고 먼지를 털어주고 파리를 못잡게 쫓아주고 늘 쳐다보면서 忠誠을 해야만 한다. 게다가 金日成의 사진수가 너무 많아서 유리를 다 끼우게 되면 유리값만해도 엄청난 군사비에 지장을 줄 정도이므로 一石二鳥의 目的에서 유리를 안 끼우는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실수하여 写真을 떨어뜨리게 되면 찢어지고 눈깔이 빠지곤 한다. 그러니 내가 담임한 학생이 청소도중에 떨어뜨린 사진도 例外일 수 없었다. 그래서 떨어뜨린 아이와 부모는 그날로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아마 死刑을 당했거나 아오지탄광으로 갔을 것이다. 그러나 北韓에서는 이같은 경우에 골로 갔구나, 또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갔구나 하면 다 통한다. 얼마나 金日成이가 사람을 훑쳐다가 아오지탄광에 잘 보내고 얼마나 잘 죽이면 북한 사람들에게 통하는 말이 골로 갔구나 없어지면 골로 가는 것이라는 은어가 유행하겠는가? 그 날밤에 나도 끌려들어가서 약 3개월 동안 고생을 했는데 집요하게 거짓자백을 강요당했다. 내가 그 학생을 시켜서 사진을 떨어뜨려 찢도록 했다는 말을 하라는 것이었다. 北韓에서는 思想을 分析하고 行動을 보기 위해서 學校先生들을 이 學校 저 學校로 전근을 안 보내고 또한 學校内에서도 금년에 1学年담임을 맡았으면 내년에는 3学年을 맡기는 일이 없고 어느 學校에 부임되어가서 3학년 1반 담임을 맡게되면 내년에는

그 학급을 따라서 4학년 1반을 담임하게 된다. 이와 같이 어느 학급을 한 사람이 계속 지도하므로 그 學生들은 그 先生의 言行과 思想을 똑같이 물려받게 된다. 그래서 學生에게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그 先生의 思想이 堅固하지 못하여 學生教育을 잘 못시킨 결과라고 하여 그 先生의 思想을 分析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先生들의 思想을 分析하여 보는 方法도 여러가지이다. 그래서 나는 근 3개월동안 고생을 하고 나중에는 死刑場까지 끌려 갔었다. 死刑場에 끌려가 地下室에 끌려갔던 당시의 일들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기진맥진한 상태로 끌려들어 갔을때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리기에 눈을 번쩍뜨고 앞을 바라보니 기둥에 사람을 붙들어 매어 놓았는데 발이 땅에서 약30cm 정도 떨어진 상태로 죽어 있었다. 깜짝놀라 자세히 살펴보니 눈알이 푹 빠져 디렁디렁 매달려 있었다. 그런 장면을 보았을때 정말이지 그들이 시키는대로 안할래야 안할 수 없었다.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고 나와서는 내가 솔직히 자백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그런 方法으로 죽이겠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시키는대로 내가 그 學生에게 金日成의 写真도 찢고 못된것도 하라고 시켰다고 거짓자백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랬더니 솔직한 자백을 하였다고 하면서 나를 살려 주었다.

4. 北韓의 託兒所 慘狀

북한에서는 애기를 낳으면 무조건 託兒所에 보내고 6個月 밖에 젖을 못먹이게 한다. 말하자면 北韓 女性들의 첫마져도 金日成의 것이다. 金日成이가 먹이지 못하게 해서 못먹이니까 金日成의 것이지, 북한 여성들의 젖이 아니지 않겠는가?

젖을 6個月만 먹이게 하는 이유는 젖을 먹이는 시간만큼 일을 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며 어머니들의 낡은 사상의 잔재가 젖을 통해 그 애기들에게 傳達되어 그 애기들이 완전한 빨갱이가 안되므로 기왕 빨갱이를 키워내고 共產主義者를 만들려면 어머니 젖도 먹이지 말라는 것이다. 즉 어머니와 되도록 접촉을 금하여 集團만을 알게하고 친부모 보다는 金日成이가 너의 아버지다 하는 식의 교육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이다.

그래서 애기들은 託兒所에서 젖을 제대로 못얻어 먹고 자란다. 또한 우유가 부족하여 어린이들한테 우유를 먹일 수도 없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發育이 좋지않다.

탁아소에 가보면 제일 불쌍한 아이들이 부스럼 난 아이들이고 그 다음으로는 햇빛을 못보고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이다. 햇빛을 못보고 잘 먹지도 못하면 병이 걸리는데 그병을 어른들의 경우에는 「세라브라」라고 하고 어린이들이 걸리면 「구루病」이라고 한다. 머리만 커지고 다리 같은데는 자라지 않고 여위었으며 나중에는 다리가 꼬인다.

심해지면 일어날 수도 없고 척추가 구부러져 일어나서 앉지도 못하게 된다. 그런 애들이 바로 누워 있는 것을 보면 가슴에 물이 한그릇 정도 들어 갈 만큼 아주 움푹 파져있다. 원인은 정확히 잘 모르겠으나 잘 먹지 못하는데다 햇빛을 못보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탁아소에서는 한 사람의 보모가 15명의 어린이를 돌보기 때문에 日光浴같은 것을 시킬 수가 없다. 이 병에 걸린 애들은 예닐곱살이 되어도 일어나지 못하고 대개 다 죽는다. 대부분의 북한 탁아소에서는 어린이가 약 100명 정도 된다면 그중 20~30명은 죽는 것 같다.

그리고 부스럼을 앓는 어린이에게 북한에서는 제일 좋은 약이 「다이아젠」이라는 알약으로 그것을 부스럼에 바르기도하고 먹기도 한다. 걸리는데도 먹고 소화 안되는 데도 그 약을 먹는데 약을 자주 써서 그런지 현대에 그 약을 발라도 낫지 않는다.

그러나 이 부스럼은 온 머리에 다 번져 대개 100명중 15명쯤은 약 3~4년씩 앓는다. 게다가 탁아소의 시설도 정말 말이 아니다. 바닥에다가 명석을 깔아 놓았는데 애들의 똥 오줌이 명석 사이에 배여 들어가 명석이 아주 번들번들해져 버리고 그 속에 낀 것을 파낼 수가 없이 더러워지고 냄새가 나니까 그것도 없애버리고 요사이 는 콘크리트바닥에 콩물칠을 해놓았는데 굉장히 미끄럽다. 그런 맨바닥에서 애들을 기르는데 윗목에서 소변을 보면 아랫목으로 흘러 내려 고여 있곤한다.

보모들이 애기들을 많이 보아야 하기 때문에 미처 대소변을 치우지도 못하고 어린이들은 그 속에서 함부로 장난을 쳐서 갓난애기의 얼굴에다 똥 오줌을 발라 놓기도 한다. 겨울에는 그런 데로 괜찮지만, 여름에는 파리가 끓어 자는 아이의 얼굴을 온통 덮어 어머니들이 와서도 자기 아이를 찾지 못할 정도이다.

독자들은 내가 엉터리 없는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할는지 몰라도 사실 나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르며 눈으로 보고 체험한 것만 이야기 하는 것이다.

여름에 탁아소의 어린이 머리에 부스럼이 나면 파리가 그곳에 알을 쓸어 놓게된다. 한보모가 어린이 15명을 불러고 하면 거기에는 두달된 아이도 있고 네달된 아이도 있고 네살된 아이도 있는데 정말 어린이를 제대로 보려고 해도 눈이 아플 정도니까 어느아이의 머리에 쉬를 쓸어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뜯어주지 못하면 그것이 진을 빨아 먹고 구더기가 된다. 그리고 이 구더기가 머리속으로 들어가면 보이지 않고 또 약 1주일 지나면 빨진 물이 줄줄 흘러나온다. 그러면 보모들은 머리속에 구더기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선 나무 꼬챙이로 머리의 딱쟁이를 뜯어내고 구멍을 뚫어 구더기를 잡아낸다.

서울역 앞의 지하도에 가면 「비아프라」감둥이 아이들이 굶어서 눈만 남아 앉아 있는 포스타를 붙여놓은 것이 있는데, 사실은 「비아프라」를 그릴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우리 이북동포들, 우리

피를 같이 이어 받은 이북동포 아이들, 구데기가 파먹고 있는 이북아이들을 그려 놓으면 매우 상징적이 될 것이다.

구데기를 파내주면 구데기가 굉장히 자라 있어 끔찍해서 눈뜨고는 볼수 없지만 북한에서는 이것을 보통으로 여긴다. 뭐 웅당 피가 흐르면 구데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한다.

◎ 탁아소에서 어린이에게 밥을 주거나 죽을 쑤어 줄 적에는 8~9개월 정도된 말 못하는 어린이들도 누가 이것을 주느냐 물으면 벽에 걸린 김일성의 사진을 가리킬 정도로 굉장히 눈치가 빠르다.

김일성의 사진을 가리켜야만 그것을 얻어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어린애가 손가락질을 하겠끔 누가 만들었느냐하면 어린이의 찬부모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탁아소에 가서 옥수수 죽이라도 얻어 먹겠끔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르쳐야만 하기 때문이다.

북한에는 집집마다 김일성의 사진이 벽에 걸려있다. 아침에 食事할 때에 밥을 갖다 놓고 어머니가 「누가 이 밥을 주었니?」 하고 물으면 그 아이는 일어나 벽에 걸린 김일성의 사진에 절을 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고 인사를 한다. 그어머니는 어린애가 절을 하고 오면 옆에 앉혀 놓고 그냥 밥을 먹이는 것이 아니고 「너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냐」고 묻는다. 그러면 그 아이가 밥숟갈을 들다 말고 일어나서 김일성에게 또 절을 하면서 김일성이 진짜 아버지라고 한다. 이 광경을 본 그의 아버지도 그 아이를 잘 한다고 동을 툭툭 두들겨 주곤 한다.

5. 集團農場에서의 強制勞役

그이후 나는 集團農場으로 보내졌다. 그곳에서 내가 한 일은 지게지고, 일하고 밖에 나가서 나무 베어오고, 풀베고 모심고 김매는 일이었다. 그 당시 낮에 베인 흙집이 아직도 내손에 28 균데나 남아있다. 그곳에 처음가니까 지게를 주었는데 그지게에도 계급이 있었다. 罪를 많이 지은 사람은 질통이 150 kg이나 들어갈 수 있는 큰 질통이고 그 다음에 罪過가 조금 덜한 사람은 100 kg, 그리고 빨갱이들은 50 kg 정도의 조그만 질통이 달린것을 지고 다니고 있었다.

북한에서는 思想教育을 위해서 會議를 대단히 많이 하는데 會議를 하러가서 엉덩이에 흙이 안 묻도록 돌이라도 깔고 앉을라치면 높은자리 좋아한다고 「부르조아」思想과 自由主義思想에 젖어있다고 하여 높은 자리에 앉아 피와 땀을 빨아먹는 反動根性이 있고 아직도 자신의 罪를 못뉘우치고 있다고하여 때리기때문에 맨땅에 앉아야만 한다. 그리고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일이 있는데 일을 할 때에는 지게 뒤에다 반동아무개라는 명찰을 달고 다니는데 그것이 그렇게 챙피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고의로 맨것 처럼 하지 않으려고 짐을 지고 지나가다가 나무나 벽에다 비벼버리면 새 붙인 방이 찢어지거나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더 크게 새 붙인다.

따라서 그것을 안달고 다닐래야 안달고 다닐 수 없다. 그리고

北韓에서는 쌀밥을 이밥이라고 하는데 郡黨委員長 以上級만 이밥을 먹으며 이들이 이밥을 먹는데 대해 北韓사람들은 아무도 불명을 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웅당 이밥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北韓을 거지도 없고 精神病者도 없는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피와 땀을 흘렸고 또 자기네 부모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解放을 위해 왜놈과 싸우는 동안 못먹고, 굶주리고, 고생했으니까 그 대가로 그 사람들은 잘 먹어야 한다는 사상을 주입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北韓靑年들이 저놈들은 무엇때문에 이밥을 먹어야 되느냐 階級社會가 아니냐 이런식의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아니 오히려 그런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웅당 그들은 이밥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계급이 없는 사회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나자신도 北韓에서는 階級이 없는 社會인줄 알았다. 그리고 그이하의 사람들은 모두 옥수수밥을 먹는다. 北韓에서는 男女평등권을 실시하여 女子에게 일을 시켜먹는데 정말 무섭게 시키고 있다. 男女가 하는 일의 양을 똑같이 都給制를 실시하여 짐을 지는 경우에는 하루에 1톤 500 kg을 져서 날라야만이 600 g의 식량을 배급받는다. 또한 北韓에는 시집을 안간 아가씨들이 많은데 그 理由는 시집을 가면 男子에게 딸린 부차적인 식구이기 때문에 300 g의 배급밖에 배당되지 않으나 시집을 안간 아가씨들은 세대주인 남자와 마찬가지로 600 g의 배급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아가씨들이 시집을 안가려고 한다. 남편에게 시집을 가 보

았자 남편이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벌어서 먹어야 되는데
다 그나마 그것도 시집가기 전보다 배급량이 적어지니까 시집안가
고 배불리 먹자는 속셈이다. 그래서 서른대여섯살이 되어도 시집
을 안가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해서 여성들에게 일을
시켜먹는데 특히 우스운 것은 안악이란 곳은 굉장히 기름진 평야로
서 쌀이 많이 생산되는데 여기에 가면 대부분이 함경도 아가씨들
이다.

왜냐하면 黃海道 사람은 自由思想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反動으로 몰려 다 축출되거나 死刑을 당하였다. 黃海道에
다 威鏡北道の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 아가씨들을 데려다 놓고
집을 주어 살게 하면서 千里馬運動을 시켰다. 千里馬運動은 한마디
로 말해서 지고 가던 것을 이고, 안고, 들고, 지고 뛰는 운동으로
서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하자는 것이다. 그 아가씨들을 추어
주면서 일을 시키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아가씨들이라 이고, 지고,
뛰가 운동을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시집도 안간 아가씨들이 밀이 빠
져 버리곤 한다.

이래서 시집을 가도 애를 못 낳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金日成이
는 애기를 다섯이상 낳아서 기르면 母性英雄稱号를 주는데 이 칭호를 받은
사람은 굉장한 대우를 받는다. 男女平等樞法令이 公布된 7월 30일이 되
면 천이 부족해서 속옷도 못입고 다니는것이 北韓實情인데도 이들
에게는 카텐감까지 나누어준다. 그래서 母性英雄이 되려고 北韓女性
들은 옷갓애를 다 쓴다. 그러나 많은 애를 낳아서 託兒所에 갔다

말져 놓으면 구태기가 다 파먹으니까 자랄 수가 없다. 그런데
 몇명이 母性英雄称号를 받았느냐하면 내가 알기에는 13명이다.
 다섯이상 낳아서 기른 사람이 13명밖에 안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말하자면 자기 体力에 맞지않는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애기를
 낳을 수가 없고 애기를 낳으려고 해도 시집가기전에 밀이 빠졌으
 니까 애기를 낳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都市의 男性과 農
 村의 女性이 結婚을 할 경우에 都市의 男性에게 응당히 시집을
 가야되는데 그럴수가 없다. 왜냐하면 전쟁준비를 위해서 都市人口를
 固定시켜 놓았는데 그 女性이 都市에 가서 거주하면 人口가 늘어
 나기 때문에 移住許可가 안된다. 말하자면 전쟁이 일어나면 먼저 都市가 파
 괴되는데 도시에 人口가 많을 경우 인명피해를 많이 내므로 전쟁
 을 할 사람과 後方事業을 할 사람도 줄어들므로 都市에 人口를
 집중시키지 않고 分散시키고 있다, 따라서 都市의 男子가 農村의
 女子와 結婚했을 경우에는 都市의 男子가 女子를 따라가야 되는데
 女子따라 가기에는 그래도 男子로서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처음
 에는 잘 가지않는다. 그러다 대개 3~4년이 지나 서른대여섯
 살 먹게 되면 어쩔 수 없이 男女가 함께 살게되고 그때는 도저히
 애기를 많이 낳을 수가 없다. 35세가 지나가지고 애기를 낳는
 다고 해도 둘셋밖에 더 낳겠는가? 그러니까 母性英雄称号받기
 는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나는 韓國에 와서 재미있는 것을 많이
 보았다. 美人大會를 보면 수영복 하나만 입고 군중앞에서 재고
 나오는데 그것을 보았을때 정말 행복스럽구나 이것이야 바로 自由로구나

하고 느껴지는데 北韓에서는 美人이 그런것이 아니다. 날씬하고 예쁘게 생긴것이 美人이 아니고 키는 작아도 꽤참고, 눈이 하나 없어도 꽤참으며 다리를 절어도 상관없다. 오직 美人의 비결은 60kg 이상 체중이 되어야하고 365일 동안 하루도 안빠지고 출근해서 일을 할수 있는 여자, 그리고 지게를 지면 지게가 등에 딱 붙어가지고 100kg을 저도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여자를 말한다. 오로지 北韓에서의 美의 척도는 勞動力量이다. 韓國의 美人과 北韓의 美人은 너무 다르다. 만약 北韓의 美人과 韓國의 美人을 비교한다고 하면 참 재미있을 것이다.

아름은 北韓에서는 일잘하는 사람이 無條件 美人이다. 또 韓國의 女性은 職場여성이라도 出産休暇가 있으나 北韓의 여성들은 애기를 가지면 産後休暇도 가질 수가 없다. 休暇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을 안하면 밥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출근하지 말라고해도 나오는 것이다. 내가 강제노동을 당하여 옥수수 밭에서 김을 매고있을 때 밭고랑에서 애기를 낳아 치마에 싸가지고 나오는 부인들을 보곤 하였다.

애기를 가져도 나가서 힘든 일을 해야 하니까 굉장히 배가 고프며 기운이 없는데도 일을 해야 하니까 지게를 져야하고 지게를 지다가 넘어지면 流産을 해버리는 일이 많다. 따라서 임신을 해도 제대로 낳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北韓農村의 하루의 일과는 아침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벌보기 운동, 국안먹기 운동을 하고 낮에는 이고, 지고, 뛰기운동, 統一貯蓄

運動, 戰略주머니차기운동, 천삼뜨고 허리펴기운동등 이루 말할 수 없
 이 運動이 많다. 이러한 運動이 120 가지나 된다. 그외에도
 열두바닥파기 운동과 저녁에 달보기 운동이 있는데 조금씩만 설명해
 보겠다. 北韓에 있는 흥남 질소비료공장에서는 사실 비료를 생산
 하지 않고 전쟁준비를 위하여 군수물자를 생산하고 있다. 비료
 를 생산하지 않는 이유를 金日成이는 다음과같이 말하고 있다.
 「日帝時代に 日本놈들이 우리곡식을 보다 많이 착취해가기 위해서
 많이 생산하려고 化学肥料를 너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땅이 산
 화되었고 이 산화된 땅에 화학비료를 계속해서 사용하면 땅이
 더욱 나빠져 수확이 떨어지니까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대신 자급비
 료나 개토작업을 해서 땅을 개량하라」는 것이다. 이런연고로
 열두바닥파기운동과 새벽별보기운동을 하게되었는데 북한 사람들은
 밥을 먹지 못하니까 사실 퇴비를 많이 생산할 수가 없고 가축도
 개인의 가정에 기르는 것이 아니고 다 빼앗아다 한곳에 집합을
 시켜놓고 기르는데 잘먹이지 못했으니까 소같은 것도 밭 두어이랑
만 같면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니 자급비료를 많이 생
 산할 수가 없으니까 새벽에 밖에 나가서 개똥, 쇠똥을 줍는 운동
 을 하는데 이것이 새벽별보기 운동이다. 따라서 새벽별보기운동은
 도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에서만 한다. 새벽별보기운동이
 끝나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주운것을 저울에 달게되고 그때 그
 날의 계획량에서 부족한 사람은 100원 벌이를 할 경우에 30원을
 보상해야 한다. 그래서 새벽별보기운동을 하지 말라고해도 다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국안먹기운동은 평양방직공장에서 제일먼저 시작되었는데 이것을 생각해 낸 아가씨는 이름이 김다숙이며 나이는 36세로 二重英雄이다. 게다가 키는 150 cm정도인데 땡땡하고 굉장히 못생겼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일등가는 美人이다. 이 아가씨는 평양방직 공장의 5,000 명의 여공들이 하루에 10 분씩 변소에 가면 50,000 分の 時間의 소비되는데 이 時間에 천을 짜면 統一이 된 후에 헐벗은 남한동포에게 옷을 줄수도 있는데 국을 먹게 되면 자연히 소변보러 가는 時間이 많아지므로 국을 먹지말자는 것이 국안먹기운동이다. 그래서 국을 못먹게 하고 있다. 변소에 한번만 갔다 오더라도 그만한 천을 짜는데 국을 한그릇 먹으면 세번정도 변소에 갔다와야 되니까 국을 안먹으면 얼마나 愛國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렇게해서 시작된 국안먹기운동은 농촌으로 퍼져 농촌에서도 국안먹기운동을 하고있다. 북한사람들은 아침에는 국안먹기운동, 낮에는 열두바닥파기운동과 지고, 이고, 안고, 뛰기운동을 한다. 열두바닥파기운동을 할때에는 저울을 갖다 놓고 한짐질때마다 달아서 하루의 일한 량을 평가한다. 그리고 일이 끝나면 하루의 目標量과 比較하여 하루에 1원벌이 하는 사람, 50전벌이 하는 사람으로 나누어 지는데 女子들은 하루에 보통 50전밖에 벌지 못한다. 그리고 또 밥을 먹을 때에는 밥표지가 있는데 이것은 일을 한 량에 의해 결정되며 이것도 7등급까지 있다. 농민들은 대개 5級에서 3級사이에 해당되며 女性들은 3級정도인데 이 3

級은 보통 죽을 먹는다. 자기 일한만큼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을 정도의 일을 못했기 때문에 죽을 먹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男子는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하니까 밥을 먹게 된다. 그런데 북한에서도 夫婦間에는 그래도 情이 있는 것 같다. 食事때에는 꼭 마주 앉아서 먹는데 남편은 슬슬 옆사람들의 눈치를 보다가 남이 안보면 자기의 밥을 재빨리 퍼서 자기아내의 죽 그릇에다 넣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만약 발각이 될 경우에는 남편도 그 이튿날부터 죽을 먹어야 한다. 그러니까 人間의 情이라는 것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살고 싶어서 사는것이 아니고 목숨이 붙어있으니까 살아가는 실정이다. 그러면 모두 자살이라도 해버리지 왜 사느냐? 고 하겠지만 자살을 하려해도 할 수가 없다. 만약 한 사람이 자살을 하면 그 사람이 자살한데는 그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反動짓을 했다든가 간첩과 접선을 했다든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것이 발견되면 아무래도 사형을 당하게 되었으니까 자살을 했다고 누명을 씌워 그 가족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이래서 북한 사람들은 자살을 할 자유조차 없다.

6. 北 韓 脱 出

휴전선 부근에서 일을 하러 나갈 때는 줄을 서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나간다. 나갈 때는 초소에서 누구누구가 나갔는지 검열을 하며, 작업장에서는 쇠사슬을 풀어 놓고 일을 시키면서도 보초를 세우는데 왜 보초를 세우느냐고 물을 양이면 南韓에서 납치해 갈까 봐서 비록 反動이지만 보호해 주기 위해서 보초를 선다는 얘기를 해주어서 고맙게 생각했다.

이렇게 일을 하면서 나는 大韓民國放送을 들을 수가 있었다. 처음에는 다 섞어 빠진 나라라고 생각을 했기때문에 아무 것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북한에서는 전투에 나가는 기분으로 군가 같은 것을 부르는데 대한민국에서 들려오는 노래는 북한같이 딱딱하고 모가나는 노래가 아니어서 남한사람들은 배불리 먹지 못해서 기운이 없어서 그렇구나하고 생각했는데 방송도중에 결핵약 선전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결핵을 앓으면 대대손손 망하는 병인줄 알았고 환자는 감금해야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13년만에 나의 동생에게서 편지가 왔다. 동생은 함경북도에 갔다가 결핵에 걸려, 황해도의 결핵수용소에 격리되어 있다고 했다. 그 편지를 받으니까 南韓에 결핵약이 있다면 방송생각이 났고 동생을 데리고 넘어 가면 살릴 수 있을것 같아 대한민국에 넘어 올 결심을 했다.

그러나 北韓에서는 마음대로 旅行도 할 수가 없다.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덟가지 증명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가 꽤 힘들다. 고향에서 어머니가 죽었다고 전보가 와도 外出証을 바로 안 끊어 주며 간신히 外出証을 끊어가지고 고향에 가면 이미 매장한 뒤가 된다. 그러므로 잘 필요도 없다. 그렇게 힘든 외출증을 끊기 위해 나는 난생 처음으로 外出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겨우 외출증을 끊어가지고 咸鏡北道로 갔는데 여행기간은 1주일이었다. 왜 一週日이 기한이나 하면 북한 사람들은 너무 生活이 곤란하여 옷을 자주 갈아 입을 수도 없고 또 옷이 많지 않으니 까 자주 빨면 헤어지기 때문에 잘 안빨아 입고 냄새가 나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래서 옷을 입고 자며, 입고 일하면서 땀흘리고 비맞고 했으니까 냄새도 나고 이도 잘 끊는다.

이가 끊어서 봄철이 되면 가는 곳마다 발진티브스가 유행하여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 그래서 外出을 갈려면 이 검열을 받아야 된다. 죽은 이는 천마리가 나와도 通過가 되므로 외출증을 끊을 때에는 이 박멸을 위해서 술에다 경거리를 받쳐놓고 옷을 벗어서 넣고 썩사 뜨거운 김에 익혀서 죽인다. 그리고 그것을 툭툭 털면 다 떨어져 버리는데 그것을 입고 진료소에 가서 이 검열을 받는다. 죽은 이는 아무리 나와도 상관없고 산 이만 없으면 된다. 그런데 一週日만 되면 이가 다시 생겨나므로 위생 통과증이 일주일 기한이고 외출증도 다 그 기한이지 더 이상 기한을 주지 않는다.

나도 一週日 期間의 證명을 발급받아 함경북도로 가면서 평양을 거쳐 사흘만에 도착했다.

평양에서는 여러가지 물건을 살 수 있는데 나는 운동기구점에서 구명대로 사용하기 위해 빨갱이 자녀들이 대동강에서 물놀이 할 때 사용하는 고무 튜브를 하나 샀다. 고무 튜브를 살 때, 「어디에 사용하려느냐」고 묻기에 「나는 학교 선생인데 학생들이 사달라고 해서 산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산 고무튜브가 검색에서 발각되면 어디로 도망가는데 사용하려고 고무튜브를 샀느냐고 추궁을 할까봐서 감춰가지고 함경북도로 가서 어머니가 일하시는 곳에 갔다.

北韓에는 90세가 환갑이고, 60세는 청춘이라하여 60세된 사람으로 구성된 靑春作業班이라는 것이 있다. 어머니는 청춘작업반 중에서도 水産協同組合 청춘작업반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여섯살 때 부모와 헤어졌기 때문에 어머니의 얼굴을 몰라서 어느 할머니에게 내동생 이름을 대면서 「박동하 어머니가 어느분이지요」 하고 물어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라고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살이 쪼렷 있었다. 그것을 보고 우리 어머니는 反動인데도 쌀밥을 실컷 잡수셨구나 생각했다.

어머니 앞에 가서 「어머니 제가 왔어요, 제가 명하예요」 하니 까 어머니는 여섯살 때 너를 버리고 왔는데 네가 살아서 이렇게 컸구나하면서 내 옷을 만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머니의

손을 보니 피투성이인데, 흠은이들이라 다른 일은 못하고 고기 배를 따는 일을하였기 때문이다. 어머니에게 피가 제 옷에 묻었니까 만지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를 찾아 왔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만지기만 하느냐」고 했더니 그 옆의 할머니가 하는 말이 어머니는 앞을 못 본다고 했다. 그제서야 나는 교육이라는 것이 정말로 그렇게 무서운 것인 줄 알았다. 반동을 가려내기 위해서 남의 손만 보던 버릇이 생겨 어머니 손만 보고 있다가 어머니가 앞을 못 본다는 소리에 어머니 얼굴을 쳐다 보니 어머니 눈이 튀어나왔는데 다 하얀 백태가 끼어 눈동자가 둥글둥글 물아 가는데, 도저히 볼 수가 없었다. 또 자세히 보니 어머니는 살이 썩은 것이 아니라 영양실조에 걸려 몸이 부어 있었다. 어머니 손을 붙들고 살펴 보니 그 소경 눈으로도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배를 따느라 얼마나 애를 썼는지 손에 온통 칼 상처가 나있어 정말 볼 수가 없었다. 그런 어머니를 나는 13년 만에 보았다.

지금도 북한에는 유독 나의 어머니뿐만 아니고 越南者家族과 地主資本家로 낙인 찍힌 사람은 모두가 다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그런 어머니를 그냥 두고 올 수가 없어서, 안전부에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하루 밤만 자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애걸하다싶이 하여 겨우 하루 저녁 어머니와 숙박했다. 한날에 32원 밖에 못받는 내처지에 40전이라는 숙박료를 낼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사는 집으로 갔는데 그곳은 밤하고 부엌이 따로 없는 곳이였다.

어머니는 나에게 콩치와 감자를 넣고 국을 끓여서 주었으나 먹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와 하루밤을 지내고 다음날 부두에서 배를 타고 떠나는데 그때 어머니가 「가을에 오너라, 가을에 오면 밥을 해주마」하면서 손을 흔드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북한에 가을이 어디에 있는가? 겨울이 어디에 있는가? 아무때고 다 굶어야 하는 세상이다. 이런 어머니를 뒤에두고 오자니 발길이 안떨어 졌다. 어머니는 헤어진 치마를 입었는데 바람에 휘날려 엉덩이가 보였다. 北韓 사람들은 「팬츠」를 안 입고 사는 사람이 많다. 높은 사람들이야 잘 입지만 그 밖의 사람들이 「팬츠」를 입었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다. 나는 그런 것을 잘 알았지만 어머니가 「팬츠」를 안입었으리라는 생각은 못했다.

어머니의 엉덩이가 보이던 것이 아직도 생각이 나, 좋은 것을 입고 싶어도 입지 않고, 또 좋은 것을 구경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다. 여기 할머니들이 좋은 옷을 입고 행복한 것을 볼 때 우리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기 때문이다.

어머니에게 갔을때 안 사실은 아버지가 咸鏡北道에 간지 3개월 만에 매맞아 척추가 부러져서 돌아 가셨다는 것이다. 이런 어머니를 보고 또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오면서 부모 원수를 갚아 주리라고 결심했다.

나는 9男妹의 여덟째다. 내가 넘어온 다음에 오빠들은 「시베리아」로 다 불들려 갔다고 들었다.

어머니와 헤어져 평양에 온 나는 탈출할 때 동생에게 주려고 고무 슈트를 하나 더 샀다. 그것을 감추어 가지고 철원까지 오면서 동생을 빼내오기 위해서 동생이 있는 수용소에 어머니가 돌아 가셨다고 거짓 전보를 쳤다. 電報를 치고 철원에 도착하여 20여일을 기다려도 동생은 오지 않았다. 그러던 8월 어느날 저녁 9시쯤 되었을 때, 캄캄한 밖에서 누가 나를 찾길래 나가 보니까 동생이 와 있었다.

동생에게 약 500 m 떨어진 임진강가에 나가 있으라고 했다. 그리고 나는 親田들에게 내가 앓고 있던 심장병 때문에 주사 맞으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재통에다 파묻어 두었던 고무 슈트를 파 가지고 동생이 기다리는 임진강으로 나갔다.

동생은 빨리 오려고 했으나 곧 보내주지 않아서 늦었다는 이야기와 병원의 실험대상으로 뽑혔다고 말했다. 그래서 3일 동안의 휴가를 얻을 수 있었고, 4일째 되는날 12시까지 평양 인민병원에 가서 實驗對象이 되어야 하는데, 실험대에서 가슴을 찢겨 죽을 수 없다고 하면서 당장 地雷를 밟아 죽는 한이 있어도 좋으니 아무데나 가자고 했다.

그래서 동생과 함께 남쪽으로 오기로 들어서 굳게 결심을 하고 고무 슈트에다 바람을 넣었다. 동생과 나는 바람을 넣은 슈트를 하나씩 낀 후에 서로 떨어지지 않게 허리에다 줄을 맨 후에 폭

또같이 쏟아지는 임진강에 들어갔다. 그러나 물살이 너무 세어서 줄이 끊어져 동생과 떨어져 버렸다. 나는 혼자서 사흘을 떠내려 왔으나 대한민국이 아니었다. 얼마나 물이 차고 물결이 세었는지, 옷은 다 찢어지고 몸은 상처투성이인데다 신은 벗겨져 나가고 그 꼴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되었다.

그런 꼴로 육지에 기어올라 오니 기운도 없고 힘도 없는데 그만 북피군에게 들켜 버렸다. 뒤에서는 다구치고 산 꼭대기에서는 아직 살아서 간다고 고함치면서 사격을 해왔다. 아불사 아직도 북한이구나 하고 다시 긴장하게 되었다.

총알이 심하게 떨어지면 엎드렸다가 사격이 좀 중지되면 다시 기곤 했다. 그러면 또 살아서 간다고 꼭대기에서 소리를 지르고 또 사격을 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다 보고 주위를 살펴보니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내가 이쪽으로 온 것을 알았다.

그때 나는 고무जू브를 버리고 앞을 보니까 나무가 무성하였으며 가지밭이 있었는데 다음 순간에는 이상하게 큰 길이 눈에 보였다.

「야! 저것이 남한길이로구나.」 이제는 총알이 다리에 맞더라도 남쪽에는 약도 많다고 하니까 살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뛰어왔다.

한참 뛰었는데 얼마나 뛰었는지 벼랑간 목이 타올라오더니 정신이 났다. 더욱 똑똑히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상하게도 내가 벼랑 밑에 떨어져 있었다. 내가 벼랑을 길로 잘못 보고 뛰었던 모양이다. 그 벼랑이 길로 눈에 어렸는지 하나님께서 거기

떨어져야 산다고 인도를 했는지 결국 벼랑 밑으로 떨어졌던 것이다.

목이 타서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입이 이상했다. 입술이 떨어져서 너털너털하고 이는 다 부러져 있었다. 그래도 먹어야 하니까 장마로 아무데나 고여 있는 물을 먹었다. 물을 좀 마시고 나니까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그래서 또 기기 시작했다.

지금 나는 金日成에게 감사하는 것이 있다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길러 주었고 군사훈련을 철저하게 시켜 주어 휴전선을 넘어 대한민국에 살아서 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강물 속에 지뢰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었으며 육지에 올라와 기어 올 때도 나무를 꺾어 가지고 땅 밑에 지뢰가 있는가 없다가 쫓겨 보면서 앞으로 갔다. 또 남·북을 가리지 못하고 方向을 잡지 못할 때에는 지뢰구역에 들어가서 지뢰를 파 보았다. 즉 아직 북쪽인가, 남쪽에 오지 못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뢰를 파보면 북한 지뢰였다.

7일 동안 갖은 고생을 다해가며 결국은 국군 초소까지 도착했다. 나는 대한민국 국군을 아주 무섭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잘 대해 주었다.

그런데 국군 초소 밑에 까지 왔을때에도 북피군인일까 봐서 감히 부르지 못했다. 그래서 그 초소 밑에 와서 북한에서 배운대로 확인을 했다. 대한민국 사람은 썩어빠진 밀가루만 먹어서 말

을 빨리 못하고 썩어 빠진 세상이라 썩어 빠진 유행가만 부른다고 배웠는데 마침 초소 꼭대기에서 부르는 노래가 유행가였다. 그래서 대한민국인 것을 알았으나 한가지만 가지고는 완전히 믿어지지 않던 차에 장교가 부하를 부르는데 「야!야!」하고 부르는 것을 듣고서 대한민국 군인인 것을 더욱 확실히 알았다.

그때야 큰소리로 「피퇴군 아저씨!」라고 막 불려댔다.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으면 대한민국 국군이란 것도 몰랐고 피퇴군이 호칭인줄만 알았겠는가?

그렇게 부르니까 꼭대기에서 살아 왔구나 하면서 춤추는 것 같이 막 날뛰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을 보고서 저놈들은 정말로 야비하구나 살아서 온 북한사람을 보니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좋아 날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막 울었다. 울고 있으니 한 장교가 내려와서 그쪽은 지뢰밭이니까 이쪽으로 돌아오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이 오라고 해도 기운이 없어서 갈 수가 없었다. 이윽고 그 군인이 돌아오더니 무엇을 가졌느냐고 물었다. 아무것도 안갖었다고 하니까 돌아 앉으라고 했다. 그 군인이 옆에와서 만져보더니 「아무 것도 없구만」하면서 가자고 했다.

그러나 긴장이 풀리고 7일동안 먹지 못한 허기가 겹쳐 도저히 못 가겠다고 하니까 나를 안고서 국군 초소까지 가서 체중을 달아 주었는데 38 kg이었다. 그리고 뽕무게를 단 후에 커다란 물통에 나를 빠뜨려 버렸다.

그런데 나는 그곳에다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줄만 알고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걸했다.

그때 나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빨갱이 보다 너희가 더 악질이다. 북한에서 반동을 죽일때에 창으로 찔러서 30분 이내에 죽이는데 너희는 물에다가 넣어두고 굶겨서 죽일려는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살릴려고 약물에 소독을 시키는데도 죽이는 줄로 안다」면서 웃어댔다.

그때야 내 몸을 살펴보니 온몸이 다 벗겨져서 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이 질질 떨어지고 몸뚱아리는 상처투성이었다.

그 다음에 차를 타고 철원 부근의 某軍部隊에 도착하여 어느 큰 집에 들어가니 식탁을 하나 갖다놓고 나를 회전의자에 앉혀놓더니 배가 튀어나온 사람이 이북에서 사흘을 먹어도 남을 정도의 밥과 숟가락을 두개씩이나 갖고 들어 왔다. 그는 내 앞에 앉아서 먹으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韓國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이북에 있을때 김일성이만 배가 나오고 그 외의 다른 사람은 배가 안나오는 줄만 알았기 때문이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분이 사단장이었다. 한국 사람들은 먹지 못했으니까 물론 배도 훌쭉한 줄 알았는데 배가 나온 사람을 보니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일본 해적인줄로 알았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 모두 퍼먹고 배터져 죽으라」고 고함을 쳤다. 그는 나의 고함소리를 듣더니 허허 웃으면서 「며칠은 굶었을 텐데 그렇게 소리치는 것을보니 빨갱이는 정말 악질이군」하면서 「약을

넣지 않았으니 나 먹는대로 우선 밥이나 먹으라」고 했다.

그런데 나는 이북에서 그때까지 한번도 친구들과도 함께 밥 한그릇 같이 먹어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양을 조금 주기 때문에 나 먹기도 부족하여 도저히 친구하고 같이 나누어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모처럼 구수한 밥냄새를 맡으니깐 먹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남쪽으로 오는 도중 허기를 채우려고 다래 머루등을 따서 그냥 삼키다 보니 그것이 목에 붙어서 염증이 생겨 도저히 음식을 삼킬 수가 없었다.

나는 처음으로 목에 붙어 있는 것을 떼내달라고 애걸했다. 그래서 군의관한테 가서 꺼내고 주사를 세대 맞았다. 그때 주위를 보니 10여명의 여자들이 있었다. 여자들은 머리를 높이 올린데다가 루즈를 빨갛게 바르고 신을 신었는데 그것이 「게다」 짝 같이 보여 일본 여자들인 줄 알았다.

처음에 여자들이 「미니 스커트」나 어깨가 파진 옷을 입은 것을 보았을 때 남한에서는 옷감이 모자라 입지 못한다는 김일성의 말이 꼭 맞는 줄 알았다.

이북에서는 아가씨나 아주머니들이 옷을 맞게 입지않아서 젖이 좀 불룩하게 보이면 共產主義 도덕이 없는 년이라고 내다 놓고 비판을 시킨다.

그런 세상에서 와 보니 나는 한국 여자가 도대체 없다고 느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나에게 옷을 입힌다고 군복 바지틀

죽자라서 입히고 발에는 상처가 났으니까 수건을 감아서 군화를 신켰다. 군인들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장교들이 부인들의 옷을 가져왔다. 갖고 온 옷은 이상하고 울긋불긋했고 신은 높고 뽕족

했다. 그때 나는 日本년이 입던 옷을 입힌다는 생각이 들어서 옆에 옷을 갖고 오지도 못하게 했다.

지금도 생각하면 웃은 것은 브라자를 보고 그것이 무슨 고문 도구인 걸로 생각하여 무서워 했던 일이다. 그때 그것이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고 돈으로 사야 하는 줄 알았으면 많이 얻어 놓을 걸 하는 생각이 든다.